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장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구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앗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며 잠시 안정을 찾는가 했지만 이내 앗수르를 상대로 하는 반역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는 배반과 반역이 되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앗수르와 같은 거대 제국의 침입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감옥에 사로 잡혔고 백성들도 앗수르로 끌려가 사방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과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진짜 원인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18장11-12절 말씀입니다. "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앗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 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고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는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수23: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7절 이하에도 이러한 사실을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르고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산당을 세우고 목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17:12).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분의 백성으로 친히 불러주신 복 받은 백성이었습니다(출6:7). 그들에게는 양자 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롬9:4).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 받게 될 복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신11:11-15).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분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모든 민족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방 신들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에 실패하고 화를 자초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우리 본성이 그만큼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본성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창2:16).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 단 한가지 명령을 따르는 것에 실패하였고 사탄 마귀의 미혹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롬5:12).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는 인간의 죄악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몸에 베인 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들은 나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있지만 인간 죄악의 본성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 마귀의 미혹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미 그 결말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마치 답을 미리 알려주고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이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모세를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출3:14-15).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분의 일방적인 사랑과 관심을 알려주셨습니다(출6:7).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을 따르며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빠른 지름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말라고 미리 주의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미리 다 알고 보는 시험처럼 너무나 쉬워 보이는 이 일에도 이스라엘은 실패하였습니다. 아니 실패할 줄 알면서도, 자신들이 멸망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멸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멸망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밝히 알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인생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마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고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미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은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멸망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따르고 섬길 때 멸망하였

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무언가 좀더 나은 것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기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만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롬 11:20-21)."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을 보며 본보기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으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